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1분기 미 GDP 2%로 견조…강한 비즈니스 투자
- CNBC: 3월 핵심 물가지수 3.2%로 증가
- WSJ: 미 정부 부채, GDP 규모를 넘어섰다
- NYT: 어제 연준 파월 의장 발표 내용 요약… 파월 연준 이사로 잔류
- Bloomberg: 미 신규실업청구건, 1969년 이래 최저…18만 9천 건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가격 상승…오일가 둔화 상황

[이란 전쟁]
- Bloomberg: 미국, 이란 대응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 추진

[오일]
- Bloombeg: 캘리포니아 휘발유값 갤런당 6불 넘어

[미중 경제]
- Bloomberg: '미중 정상 회담 불구, 중국의 대미 투자 정체 될 것'

[동아시아 경제]
- TheEconomist: 늘어나는 한국과 일본 노령 근로자, 일자리 쉽지 않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실적 시즌 구글과 아마존, 메타보다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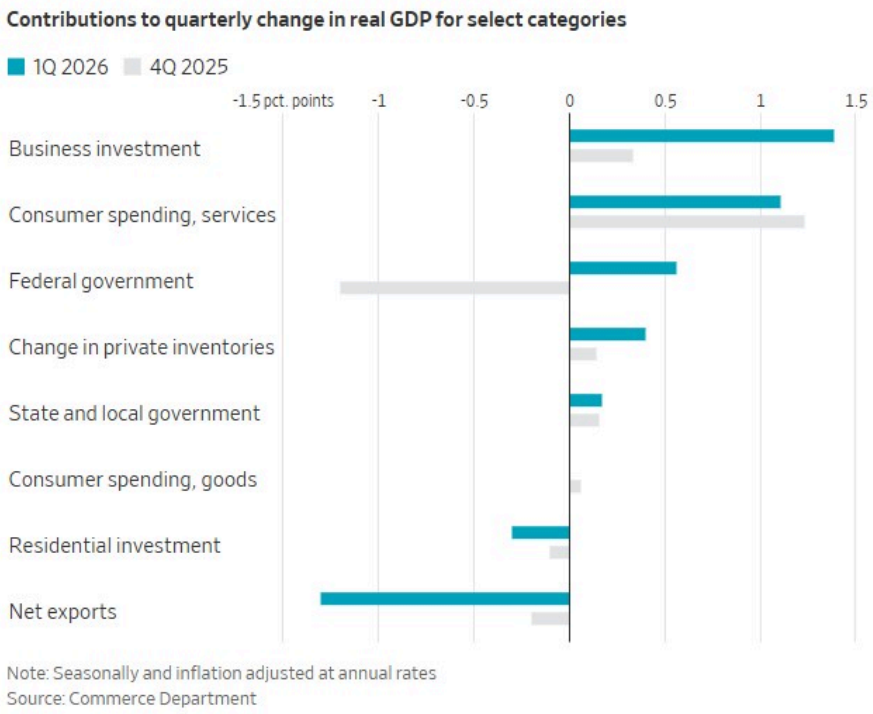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

## [미국 경제]

**WSJ: U.S. Economy Grows 2% on Strong Business Investment**
**1분기 미 GDP 2%로 견조…강한 비즈니스 투자**

- 올해 1분기 미 경제 성장률이 계절 조정치와 인플레 조정치로 연간 2%의 성장을 달성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기대치인 2.2%에는 못 미쳤다.
- 이 같은 1분기 여전히 강한 성장은 특히 인공 지능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연방정부의 지출이 영향을 미쳤다.
- 반면에 소비자 지출과 순 수출 감소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었다. 연준은 어제 수요일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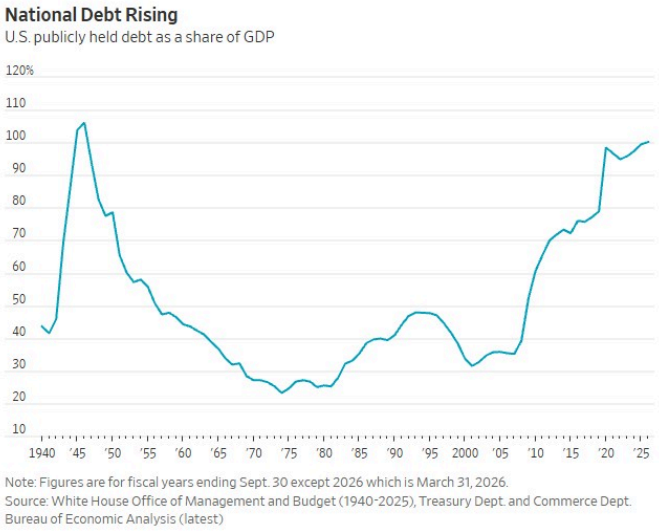
**CNBC: Core inflation rate hit 3.2% in March as first-quarter growth disappointed at 2%**
**3월 핵심 물가지수 3.2%로 증가**

-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인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는 3월의 경우 전월 대비 0.3%나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3.2%를 기록했다.
- 이 같은 핵심물가지수는 지난 202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 가격 변동성이 큰 가스와 식품을 포함한 헤드라인 물가는 0.7%로 더 상승했고, 연간으로는 3.5% 증가했다.

기사

**WSJ: U.S. Debt Tops 100% of GDP**
**미 정부 부채, GDP 규모를 넘어섰다**

- 미국 국가 부채가 한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문턱을 넘어서며 GDP의 100%를 초과했다.
- 오늘 목요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미국의 공공 보유 부채는 31조 2,65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지난 1년간의 GDP는 31조 2,16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로써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회계연도 말(9월 30일)의 99.5%에서 100.2%로 상승했다.
- 연방 정부가 매년 GDP의 6%에 가까운 적자를 내면서 정부 부채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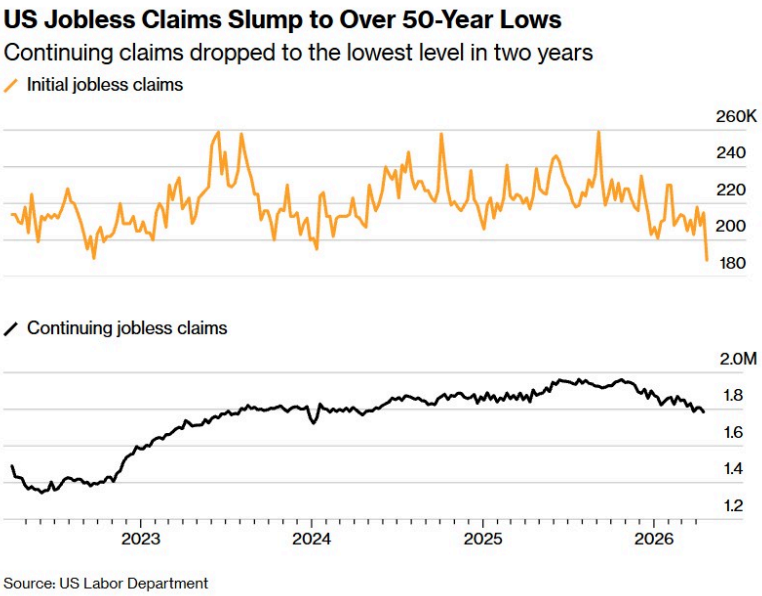
**NYT: Takeaways from Powell's final Fed meeting as chair**
**어제 연준 파월 의장 발표 내용 요약… 파월 연준 이사로 잔류**

어제 수요일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파월 의장은 임기가 끝나는 5월 15일 이후에 이사로서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28년 1월까지 있을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연준 이사로서 낮은 자세(low profile)를 유지할 것이며 새로운 의장인 Kevin M. Warsh가 여러 위원들의 합의를 잘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어제 수요일 향후 금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위험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쟁점이었다. 다만 파월은 현재 금리가 적절하며 당장 인상을 요구하는 관리는 없다고 일축했다.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Plunge to 189,000, Lowest Since 1969**
**미 신규실업청구건, 1969년 이래 최저…18만 9천 건**

-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1960년 이래 최저치로 감소했다. 이는 기업들의 감원 발표가 아직 실제 해고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이달 25일 종료된 주간 신규 실업 신청은 2만 6,000건 감소한 18만 9,000건을 기록했고, 지속적인 청구 건수도 2년 만에 최저인 179만 건으로 줄었다.
- 대기업들의 감원 소식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노동 시장은 여전히 해고가 적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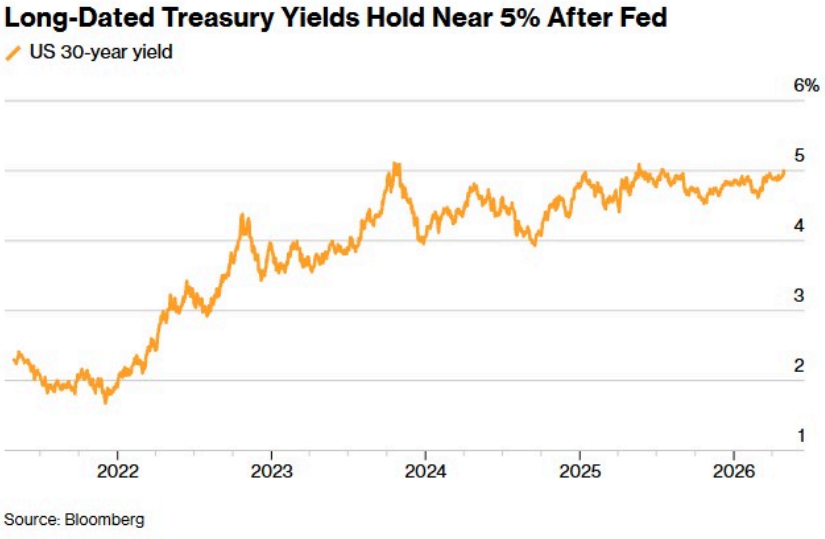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Treasuries Rebound Post-Fed as Oil Eases From Four-Year Highs**
**미 국채 가격 상승…오일가 둔화 상황**

- 브렌트유 가격이 4년 만의 최고치에서 하락하며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여전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국채 금리는 최근 고점 수준을 유지했다.
- 특히 2년물 국채가 강세를 보이며 수익률은 6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3.89%를 기록했다. 이는 어제 금리 조정 가능성을 높고 연준 내 의견 대립이 있어 향후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 현재 국채 시장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에 따른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맞춰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치를 조정 중이다(금리 인하 시점 연기나 인하 횟수 축소).




기사

## [이란 전쟁]

**Bloomberg: US Seeks to Deploy Hypersonic Missile for the First Time Against Iran**
**미국, 이란 대응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 추진**

-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내륙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Dark Eagle)'의 중동 배치를 요청했다.
- 사령부는 이란이 기존 미국의 정밀타격미사일(PrSM)의 발사 거리(약 480km) 밖으로 발사대를 옮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승인될 경우 미국의 첫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가 되며, 이미 관련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에 미국도 대등한 능력을 갖췄다는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정밀 유도 무기나 스텔스기에 더 집중하느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상대적으로 늦었었다.

기사

## [오일]

**Bloomberg: California Gasoline Price Surges Above $6 as Iran War Fans Gains**
**캘리포니아 휘발유값 갤런당 6불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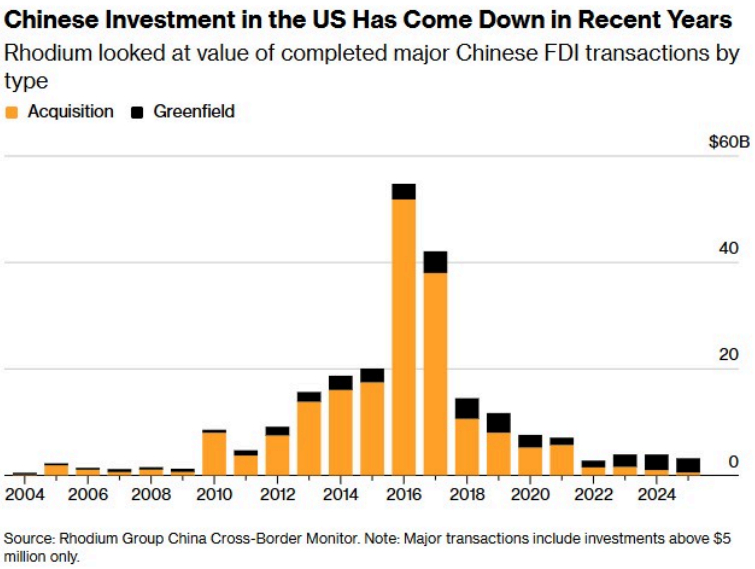
-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확산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돌파했다.
- 캘리포니아 전역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6.01달러까지 치솟았다.
- 캘리포니아는 미 남부 걸프 연안에서 연료를 들여오는 파이프라인이 없는 데다, 2025년 10월 이후 정유소 두 곳마저 문을 닫아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공급 상황이 훨씬 더 까다로운 상태다.

기사

## [미중 관계]

**Bloomberg: Chinese Investment in US Seen Stagnant Even After Xi-Trump Talks**
**'미중 정상 회담 불구, 중국의 대미 투자 정체 될 것'**

- 미·중 고위급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관련 조사 기관 Rhodium Group의 보고서는 밝혔다.
-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16~2017년 급증 후 폭락해 5년째 침체 중이며, 지난 10년간 총액은 약 1천9백억 달러에 그쳤다.
- 양국 간 무역 합의가 투자를 다소 회복시킬 순 있으나, 미·중 전략 경쟁과 불신이 깊이 뿌리박혀 있어 새로운 투자 붐을 일으키기는 희박해 보인다.




기사

**[동아시아 경제]**

**The Economist: Ageing workers in East Asia are essential. More are needed**
**늘어나는 한국과 일본 노령 근로자, 일자리 쉽지 않다**

-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한국의 경우 해당 나이의 40%가, 일본의 경우 해당 연령의 25%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 이 같은 높은 고령층 인력은 소득이 필요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다.
-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이래 고용주에게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수 있도록 권고했는데 2021년에는 해당 연령을 70세 까지 올렸다. 한국의 경우 법정 은퇴 연령을 59세부터 60세로 높였다.
- 현재 이들 정부는 노령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 고령층들도 옛날 업무나 직책에서 벗어나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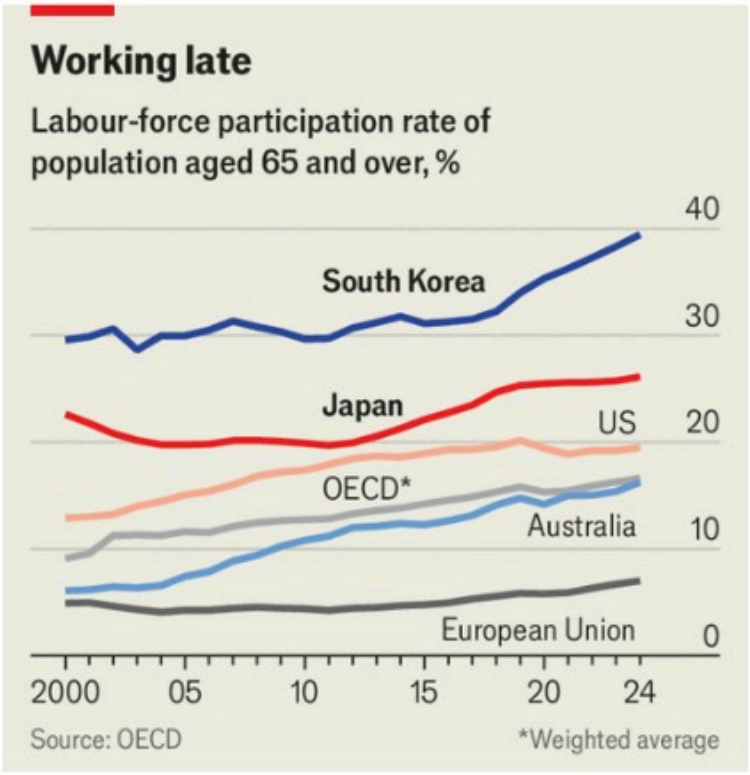



CHART: THE 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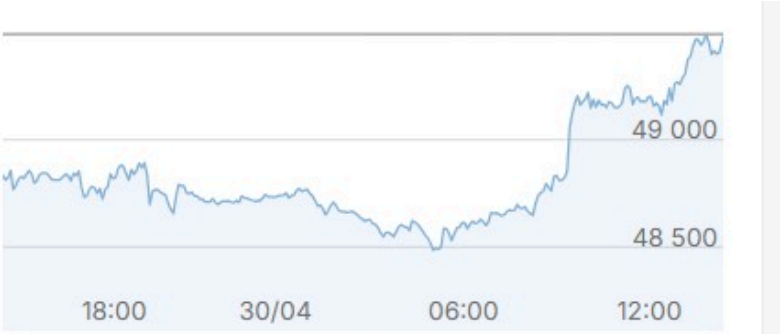
**Bloomberg: Alphabet, Amazon Outpace Meta in AI During Earnings Bonanza**
**실적 시즌 구글과 아마존, 메타보다 앞서**

- 구글은 클라우드 부문의 견고한 성장과 AI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수요에 힘입은 '의미 있는 성장 가속화'를 통해 AI 투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반면 메타는 연간 자본 지출을 늘렸음에도 소비자용 AI 앱의 성장이 구글보다 뒤처지며 주가가 급락했다.
-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4대 IT 기업은 2026년 AI 지출을 최대 7,250억 달러까지 늘리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AI 주도권 확보가 가져올 잠재적 수익이 자신들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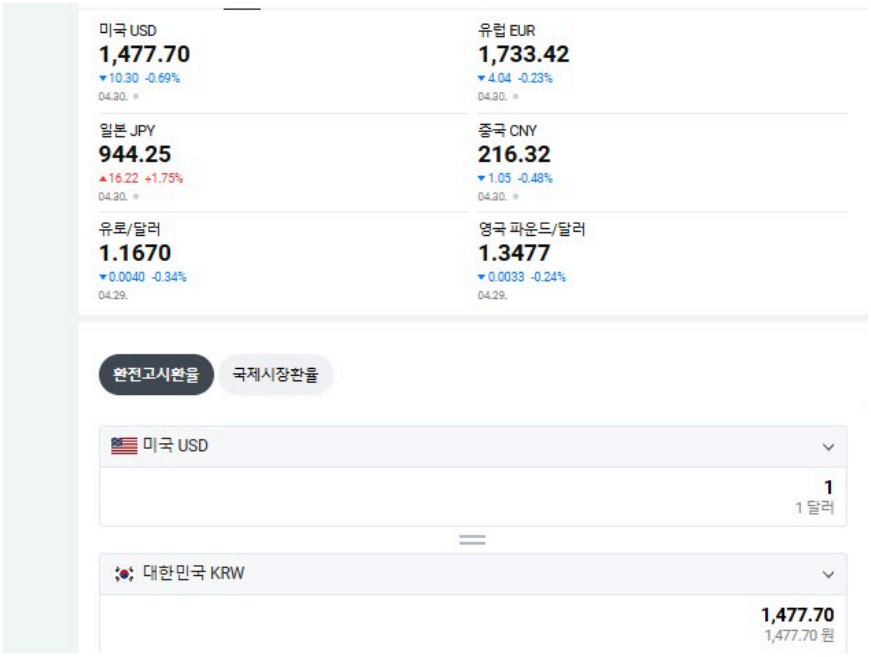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




| | | | |
|---|---|---|---|
| US 30 | 49,493.00 | +631.3 | +1.29% |
| US 500 | 7,167.30 | +31.2 | +0.44% |
| Dow Jones | 49,504.55 | +642.74 | +1.32% |
| S&P 500 | 7,167.28 | +31.33 | +0.44% |
| Nasdaq | 24,711.35 | +38.11 | +0.15% |
| S&P 500 VIX | 17.30 | -1.51 | -8.03% |
| Dollar Index | 98.04 | -0.787 | -0.80% |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